포스코 피엠씨텍, 광양 환경협과 日견학 논란

2010년 공장설립 반대 단체… 인허가 이후 관계개선?

포스코 켐텍 자회사인 (주)피엠씨텍이 광양시 민간환경협의회 간부와 시 환경과 직원 등 7명이 공장 인허가 이후 일본으로 '성과없는' 견학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공장 설립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환경단체가 해당 공장의 지원을 받아 외국 견학을 실시한 것이다.

지난 31일 광양시에 따르면 탄소소재사업 환경영향조사와 저감방안 등 자료수집을 위해 민·관·산이 상호협력을 위해 일본 미쓰비시 화학공장과 주변지역을 지난 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둘러보고 돌아왔다.

이번 견학에서 시 공무원 2명은 국외여비(170여만원)로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 5명(피엠씨텍 1명. 광양제철 1명. 환경협의회 3명)은 피엠씨텍이 420여 만원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광양시 민간환경협의회는 지난 2010년 말 당시 켐텍 화학공장 설립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 환경단체와 함께 "1급 발암물질을 내뿜는 맹독성 화학공장이 도시발전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호소문과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또 광양시에는 "화학 원료인 콜타르를 가공하는 공장이 들어서면 벤젠, 톨루엔, 나프탈렌 등의 독가스가 발생돼 악취와 신경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며 공장 설립 재검토를 촉구했었다.

이들은 천막농성까지 벌이며 반발했으나 공장 인허가 이후 피엠씨텍과 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 설립에 반대해온 환경단체가 공식적인 입장 변경 없이 피엠씨텍과 외국 견학길에 오른 것이다.

시민 박모(54)씨는 "공업지대가 형성되면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환경 및 시민단체들이 난립하고 이들이 공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가 이익이 생기면 영합하는 행위가 너무 난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엠씨텍은 총사업비 4820억원을 투입해 2014년 말 준공을 목표로 22만6080㎡ 부지에 1만707㎡ 면적의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광양시의 승인을 받았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꽃망울 터뜨린 홍매화 지난 30일 구례군 화엄사를 찾은 상춘객들이 꽃망울을 터뜨린 홍매화를 스마트폰에 담고 있다. 수령 300~400년으로 추정되는 화엄사 홍매화는 다른 고매(古梅)보다 꽃 빛깔이 검붉어 '흑매'(黑梅)라고도 불린다. /구례=이진택기자 lk5826@

"여수에 종합방재센터·산재전문병원을"

시의회, 정부기관에 건의… 노동단체, 산재병원추진위 발족

여수시의회는 29일 국회,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13개 중앙정부기관에 여수국가산업단지 종합방재센터와 산재전문병원 설치 등을 건의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대규모 화학공장이 밀집한 여수국가산단의 특성상 시민의 생명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방재센터와 산단 내 공장 등의 사고시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산재전문병원의 긴급의료지원 시스템 설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또 "여수산단은 246개 공장, 1만80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며 연간 90조원의 총생산을 하는 등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있다"며 "그러나 40년이 지나 설비가 노후화되고 국내 유해화학물질의 30% 이상을 취급함에 따라 움직이는 화약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수산단에서는 지난 14일에는 대림산업 폭발사고가 터지는 등 지금까지 200여건의 크고 작은 사고로 1000여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난 바 있다.

이와 함께 28일에는 여수지역 노동단체 등이 여수에 산재전문병원을 세우기 위해 산재병원 건립추진위를 발족했다.

추진위는 이날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사고가 특성상 화학물질의 폭발과 유해위험물질의 노출에 따른 중대 재해가 대부분으로 시간을 다투는 응급치료와 수술 등이 필요하지만 지역에 전문병원이 없어 서울이나 광주로 가야한다"며 "실제로 이번 대림산업 사고 부상자들 역시 대부분 광주나 서울 등 외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신성남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장, 차호철 한국바스프노조위원장, 김상일 여수시의원, 이영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등 4인이 우선 선임됐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보성, 지역일자리 공시제 우수기관

사업비 8000만원 받아

보성군이 최근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지역일자리 공시제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정종해 보성군수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개최된 지역 일자리정책 한마당행사에서 2012년도 지역 일자리 공시제 평가 우수상과 함께 사업비 8000만원을 받았다. 〈사진〉

군은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자리창출 실적 종합평가에서 목표 4180개 대비 5192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124%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둬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조성농공단지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적극적인 기업 투자 유치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 설계사 운영 등 다각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도 인정받았다.

군 관계자는 "올해에도 우수기업 유치 활성화와 사회적 기업 확대, 마을 기업 육성, 공공근로 사업 등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시하는 제도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순천시, 8일부터 자가용 2부제

정원박람회 앞두고 적극 홍보

정원박람회 개최를 20일 앞둔 순천시가 자가용차량 2부제를 이달 8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교통문제 대안인 자가용차량 2부제 운행을 적극 홍보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박람회 성공 시민지원본부'와 '120팔마 콜 봉사단'을 중심으로 '차량2부제 홍보단'을 구성, 박람회전까지 유관기관, 기업체, 아파트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경찰과 공동으로 지도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박람회 개최 초기, 교통체증으로 인한 피로감, 불평불만 등이 발생치 않도록 품격 높은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이 매우 절실하다"며 "특히 박람회 진입도로를 관람객들에게 양보하는 높은 시민의식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가용차량 2부제 운행대상은 영업용, 대중교통, 장애인차량을 제외한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승합)차량이며, 해당 일에는 관공서 및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등 주차장, 공공유료주차장의 출입이 제한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전북

고창, 블랙과일 산업 메카로

지자체 연계사업 3개 부분 선정 93억 확보

고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에 3개 부분이 선정돼 93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난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국에서 43개 사업이 신청된 가운데 전라북도에 7개 사업이 확정됐고, 그 중 고창군이 3개 사업(주관 1개, 참여 2개)에 확정돼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고창군이 주관하는 '검은색 과일(Black Fruit) G.M.B 활성화 사업'은 고창·무주·부안군에서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검은색 과일인 복분자, 머루, 오디 등을 원료로 과실주 및 관련 식품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가 소득창출은 물론 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 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이강수 군수는 "지역에서 보유한 문화, 역사, 환경, 농특산물 등 다양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미래 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지역자원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개별특성에 맞는 활용도와 아이템을 구상,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창군이 참여하는 '전통재래닭 산업육성 명품화 사업'(진안·고창)과 '메이플스톤 공동체 보육센터 조성'(정읍·고창) 사업도 완료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무주 머루와인-임실치즈 공동브랜드 추진

전북도 대표 특산품인 무주 머루와인과 임실 치즈가 통합제품 공동브랜드로 탄생한다.

무주군은 지난 29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공모를 통해 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주·임실군은 머루와인·치즈 연합사업단을 구성해 3년간 공동브랜드 제품개발, 와인·치즈 패키지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와인동굴 프로그램 개발, 와인 맞춤형 자연숙성 치즈 공동숙성실 설치 등을 추진한다.

전국 머루생산량의 32%를 점유하는 무주군은 머루클러스터사업단 운영해 덕유양조를 비롯한 산들벗, 산림조합, 샤또무주, 칠연양조 등 5개 업체에서 머루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임실 치즈는 1967년 벨기에 출신의 지정환 신부가 낙후된 이 고장 농민의 소득증대와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국내 최초로 설립한 후 40여 년 동안 한국 치즈의 자존심을 지켜오면서 치즈연구소, 치즈테마파크 등을 운영해오고 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애물단지' 된 정읍첨단산단

지리적 여건 안 좋아 입주 문의 없어

道-LH, 5년만에 분양가 인하 극약처방

방사성융합관련 연구소와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한 전북 정읍첨단과학산단이 분양 차질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공사가 시작된 정읍첨단산단(89만7287㎡, 약 27만평)의 공정률이 이달 현재 86%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민간 분양은 전혀 없는 상태다.

시행사인 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6월 산단조성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지만 입주문의가 거의 없는 상태다. 미분양 사태가 벌어진 것은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분양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고 RFT(방사성융합기술) 관련 산업으로 입주기업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북도와 LH는 산단 완공이 다가옴에 따라 기업유치를 위해 분양가를 일부 내리는 등 극약처방을 내놨다. ㎡당 분양가를 17만2000원에서 16만3000원으로 9000원 내리기로 했으며, 일반과 임대로 나눠 분양하기로 했다.

한편 정읍시는 전라북도와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등 3대 국책연구소, LH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합동 TF팀을 운용해 첨단업종의 우량기업을 집중 유치,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첨단방사선연구소 내 실용화센터 입주기업과 타깃기업, 국내외 RFT관련 기업의 입주여건 확보를 위해 타 산단과의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 연구 성과물 활용 및 기술지원, 기업의 투자환경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 국·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고객과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착공 당시 토지보상에 많은 돈이 소요되는 바람에 분양가가 오른 것"이라면서 "이번에 분양가를 내리고 이른 시일 내에 입주기업을 상대로 한 제한규제를 완화하면 분양이 잘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여성대학 개강 지난 27일 개강한 고창군 여성대학 수강생들이 이강수 군수의 첫 강의를 듣고 있다. 고창군 여성대학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누적수강생이 1만1000여명에 이른다. 강의는 오는 5월29일까지 10차례 계속된다. 〈고창군 제공〉

단신

군산농기센터, 영농 폐비닐 수거 캠페인

군산시농업기술센터와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 공동으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영농 폐비닐 대청소에 나섰다.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원 600여 명은 1일부터 7일간 군산시 전역에 버려져 방치된 토양 살포용 비료포대와 영농 폐비닐을 공동 수거하는 농촌환경 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농촌환경을 되살리고 폐자재를 자원화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수거품목은 지난해 밭작물을 수확하고 방치된 폐비닐과 시설하우스 철거용 폐비닐, 토양살포용 비료포대 등 영농 폐비닐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춘향골 쌀' 해외시장서 품질 인증

남원 대표작목 중 하나인 '춘향골 쌀'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10년 뉴질랜드에 첫 수출을 계기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초에는 남원농협 라이스센터에서 호주로 18t을 첫 수출한 데 이어 28일 18t을 재수출할 예정이다.

남원 '춘향골 쌀'은 지난 2011년 완공된 최첨단 미곡종합처리(RPC) 시스템을 갖춰 당일 도정해 수출 선적함으로써 최대한 미질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순창군, 3개사업 276억 국비 확보

순창군이 이달 들어서만 3개 사업에 276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군은 3월에만 금과면 방축마을리모델링사업비 20억원, 구림면 방화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246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가운데 건강장수 100세 브랜드를 활용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으로 10억원의 국비를 또다시 확보했다.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지난 23일 57개 신청사업 중 33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순창군의 '100세인이 말하는 힐링포유 실천 프로그램' 사업은 행복한 건강생활 힐링카페와 행복한 건강지킴이 헬스모빌 등 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정읍시는 전라북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과 공동으로 글로벌시대를 이끌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해 2013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을 선발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연수 대상자는 총 41명으로, 이중 초·중학생은 영어권 34명(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7명이다. 접수기간은 1일부터 12일까지로, 희망자는 교육체육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또 이와는 별도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특성화고등학생(전북도 전체 25명)과 대학생(전북도 전체 23명)도 선발한다고 밝혔다. 특성화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전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추천하고, 대학생은 시에서 접수를 받아 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일괄 선발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